

이 정 희 가 야 금

LEE JUNG-HEE KAYAGUM RECITAL

가른회상 Kajŭnhoesang 73:27

■ 영산회상 Yŏngsanhoesang

1. 상령산 *Sangryŏngsan* 16:00
2. 중령산 *Chungryŏngsan* 13:05
3. 세령산 *Seryŏngsan* 04:18
4. 가락덜이 *Karakdŏlli* 02:55
5. 상현도드리 *Sanghyŏn'dodŭli* 04:11
6. 도드리 *Todŭli* 06:54
7. 돌장 *Toljang* 01:54
8. 하현도드리 *Hahyŏn'dodŭli* 03:16
9. 엄불도드리 *Yŏmbul'dodŭli* 04:16
10. 타령 *Taryŏng* 03:15
11. 군악 *Kun'ak* 04:08

■ 천년만세 Ch'ŏnyŏnmanse

12. 계면가락도드리 *Kyemyŏn'karak'dodŭli* 03:23
13. 양창도드리 *Yangchŏng'dodŭli* 02:30
14. 우조가락도드리 *Wujo'karak'dodŭli* 03:14

· 창고 / 박 종설 · 피리 / 박 태규 · 해금 / 황애자 · 단소 / 이 두원

· 프로듀서 / 양정환  /  Yang Jeong-hwan (Director)

· 녹음 / 2000.10.24. 국립국악원 우면당 실황 녹음

· 편집디자인 / 무송기획인쇄

· 제초 / 2000.11. JIGU

신허음반을 내면서

이 정 희

늦가을은 새봄의 짝이 한여름의 茂盛(무성)함을 지나고 蕭殺(숙살)의 기운을 만나 결실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계절이다. 심는대로 거두고 가꾸는 것만큼 수확한다는 이치에는 농부의 피땀과 믿음이 있고 자연의 진리가 잠재되어 있다.

나의 12絃(현)의 농사는 반복되는 단조로움 같아도 어린 시절에 시작한 공부기 장년의 가을에 와서야 絃音(현음)의 정교한 뉘앙스와 그 맛이 어찌면 그렇게 다룰 수 있는지 비로소 覺(만각)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之天命(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알곡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에 비하면 아직은 부끄럽기만 하다.

孔子(공자)님은 鄭(정)나라의 민속음악을 싫어했으나 舜(순)임금의 음악인 韶(소)를 듣고는 석달동안 고기 맛을 잃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보면 于勒(우륵)이 처음 작곡한 12곡을 제자들이 繁且音(번차음)하다 하여 5곡으로 줄였는데 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음악이야말로 “樂而不流, 哀而不悲(악이불류, 애이불비)”¹⁾하여 雅正(아정)함을 얻었다”라고 한 기록이 있는데 이에서 正樂(정악)의 本義(본의)를 짐작케 한다.

또한 禮記 中樂記 19편에 “樂者天地之和也 和故百物皆化 樂由天作 過制則亂(악자천지지화야 화고백물개화 악유천작 과제즉난)”²⁾이라 하였으니 정악의 本源의(본원적) 의미를 엿보게 한다.

금년에 “가즈회상”을 준비하면서 새삼 전통음악의 뿌리에 溫故(온고)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바 있었다. 그리고 연습 중 정악에서 忙中有餘(망중유여)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체험에서 活氣(활기)를 되찾기도 하였다. 이번에 연주회와 함께 신허음반을 내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더 큰 도약을 기약하고자 한다.

1) 즐거워도 지나치게 흥청거리지 않고 슬퍼도 비통할 정도여서는 안된다.

2) 참음악은 천지음양 만물의 화합에 그 뜻이 있고 / 和는 모든 萬物百事(만물백사)에 그 造(조)로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 음악은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유래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지나치게 작위적이면 도리어 혼란스럽다.

CD출반에 부쳐

국립국악원 지도위원 최 충 웅

이정희 선생은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중의 하나이다.

이 선생이 국악고교 학생이었을 때 만났으니 벌써 30여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평소에 그를 지켜보니 성품이 온화하고 方正(방정)하며 매사에 誠心(성심)을 다하는 자세가 곧 雅正(아정)한 正樂(정악)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중년이 되어서는 더욱 그 풍모를 더해가고 있다. 흔히 말하기를 絃(현)에 工(공)을 들인 功力(공력)의 깊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예술적 혼과 함께 人格(인격)의 됨됨이를 엿볼수 있다고 한다.

이정희 선생은 고교 재학중 5.16민족상 가야금 부분 특상(대통령상) 수상 이후 30여년간 줄곧 정진을 거듭해 왔다. 연주자는 하나의 流派(유파)만을 고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지 않으나 산조의 여러 유파의 가락을 연주해 보겠다는 자유로운 발상이 그로 하여금 산조의 각 유파를 섭렵, 연주해 왔다.

이번에는 正樂(정악)의 “가존회상”을 연주회와 함께 음반을 내게 된다하니 나로서는 매우 흐뭇하다. 이 선생이 여러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藝道(예도)의 끝없는 도전을 向(향)한 강인한 의지의표현이라 여겨진다.

가 존 회 상

영산회상의 원곡은 상령산으로서 “영산회상불보살”의 7자를 두 장단에 한 글자씩 엮어 부르는 聲樂曲(성악곡)이었으나, 器樂曲化(기악곡화)되어 전하며 9곡의 조곡으로 이루어졌다.

영산회상 중간에 도드리(송구여지곡)를 연주하고 돌장(回章)부터 軍樂(군악)이후에 천년만세로 이어지는 형태의 음악을 “가존회상”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연주되고 있는 별곡의 형태에는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존회상 형태의 연주 소요 시간은 약 70여분이나 된다.

연주시간이 길기 때문에 연주자와 청중이 모두 힘들어하고 연주자의 탄탄한 공력이 요구되는 곡목이라 할 수 있다.

연주속도가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인 $M.M = 3$ 에서부터, 아주 빠른 템포의 $M.M = 180$ 까지 변화가 무쌍하다.

연주도중 다섯번 調(조)가 바뀌에 따라 가야금의 경우 14회 雁足(안족)을 자리바꿈하여 음정을 조절해 나가야 하며 이완과 긴장의 교차가 다른 곡에 비하여 매우 심하다.

도드리 7장 15각 4째박에서부터 늘어져 계면조로 바뀌는 돌장 부분이 신선한 변화를 주면서 신비스러운 여운이 감도는 전형적인 줄풍류곡이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세피리, 장구, 양금, 단소 등의 세악편성으로 연주하는 합주곡인 바, 이번 연주에는 가야금과 해금, 세피리, 단소, 장구로만 편성하여 준비하였다.



이정희 Lee Jung-Hee

- 〈학력〉 •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동대학원 졸업
- 〈경력〉 • 5.16민족상 음악상 특상 수상(대통령상)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와 협연(6회)
• 국립교향악단과 협연(구/시민회관)
• 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세종문화회관 소강당)
•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협연(대구시민회관)
• 조선일보사주최 신인음악회 독주(시민회관 별관)
• 국립국악원주최 신인음악회 독주(국립극장 소극장)
• 한양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음악회 독주
• 제1회 독주회(국립극장 소극장)
• 제2회 독주회(전주예술회관)
• 제3회 독주회(백남음악관)
• 제4회 독주회(백남음악관)
• 제5회 독주회(국립국악원 우면당)
• 한양국악제, 한음회 정기연주회 독주외 다수
•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사 역임(1977~1980)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강사역임(1984~2000)
- 〈현재〉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출강(1980~)
• 서울예술대학교 국악과 출강(1981~)
• 상명대학교 음악과 출강(1986~)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동문회장
• 사단법인 한 · 중 문화교류협회 이사
• 영암가야금산조 현창사업 추진위원
• 한양대학교 동문 가야금연주단 대표
- 〈사사〉 • 김영윤, 최충웅, 이창규, 홍원기, 조청지 선생님
• 이재숙, 김정지, 서원숙, 김삼태, 김준지, 황병기 선생님
• 함동정월, 지성지 선생님

〈반 주 자〉

장구 / 박종설

-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단원

피리 / 곽태규

-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악장

해금 / 황애자

-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부수석

단소 / 이두원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Kajŭnhoesang (가즈회상)

The original piece of *Yŏngsanhoe* is *San-gŏngsa* and it was used to be a vocal music whose seven characters, "yŏng-san-hoe-sang-bul-bo-sal" (영靈-산山-회會-상相-불佛-보菩-살薩), was sung with each character attached to two *changdan* (장단, lit. "long and short", rhythmic cycle). This vocal music became a well-known instrumental piece and transmitted in addition to other nine musical pieces as a suite. *Kajŭnhoesang* is performed by the way that after playing *Todŭli* (or *Songgyŏjigok* 송구여지곡) in the middle of section of *Yŏnnngsanhoe*, *Tolja* (*Hoēja*) and *Kun'* and then *Chŏn Yŏman* is played. The form of *Pŏlgo* has generally four types and the performance duration of *Kajŭnhoesa* takes about seventy minutes. Because of the long duration of the performance, this repertory requires that both the players and the audience need their endeavour and tolerance respectively. This piece proceeds with extreme tempi ranging from the slowest tempo (M.M.= approx. 30), as its subtle tempo can hardly be perceptible, to the fastest one (M.M.= approx. 180). The *kayagŭm* (12 string plucked zither) player needs to modify pitches by adjusting the *anjŏ* (movable bridges) 14 times, as its piece changes modes five times while in performance. This music is built with the alternative of relaxation and tension in extreme. *Toljang* part is changed to *Kyemyŏnjo* (minor mode) by enlarging its form at the 4th beat of *Toŭl 7cha* (장, section) 15 *kag* (각, piece), and this is a typical form of *Chulp'un* (줄풍류, a musical genre consisting of a string and wind instrument, but centred mainly on the *kŏmun'*). This modification evokes a mystified mood providing new change. *Kajŭnhoesan* consists of *Seak-p'yŏnsŏng* (instrumentation for a small group of ensemble), that is a *kayagŭm*, *kŏmun'go* (6 string plucked zither), *taegŭm* (large transverse bamboo flute), *haeŭm* (2 string spike fiddle), *sep'iri* (slender bamboo oboe), *changgu* (hourglass drum), *yanŭm* (dulcimer), *tansŏ* (small notched bamboo vertical flute), and so on. But this CD is produced by the much smaller ensemble consisting of *kayagŭm*, *haeŭm*, *sep'iri*, *tansŏ* and *changgu*.

Biography of Yi Chŏng-hee, kayagŭm player

Born in Seoul, Yi Chŏng-hee studied at *Kunglip Kugak* Senior School. She received a BM and MA specialising on the *kayagŭm* at Hanyang University.

After awarding the special prize (President Award) for her *kayagŭm* performance for 5.16 National Award, she started her professional career, giving a number of *kayagŭm* solo performances including Debut Recitals sponsored by both Chosŏn'ilbo at Small Hall of Citizen Hall and *Kunglipkugakwŏn* at Small Hall of Kunglip Theatre; Recital for Fiftieth Anniversary of Hanyang University at Concert Hall of the Arts Complex; solo recitals four times at Small Theatre of National Theatre, Ch'ŏnju Arts Hall, Paeiknam Music Hall. She also participated in many concerts as a soloist such orchestras as Hanyang University for 6 times, Kunglip Orchestra, Taegu Civil Orchestra, as well as joining the Hanyang Kugak Festival, *Hanŭmhoe*, and so forth.

She was also a teacher at *Kunglip Kugak* Senior School (1977-1980). In parallel to her frequent performing activities she has also taught the *kayagŭm* at some colleges including Chungang University Arts College (1984-2000) and others. She has currently teaching traditional music and the *kayagŭm* at numerous colleges including Hanyang University since 1980, Seoul Yesul University since 1981, Sangmyŏng University since 1986. She plays a role as an organiser at some constitutions including a president of the Union for Hanyang University Graduate Committee of Korea and China Cultural Exchange Programme; a member of Yŏng'am *Kayagŭm Sanjo* Festival; Representative of *Kayagŭm* performance Company for Hanyang University Graduate Group.

She studied music with many *kayagŭm* masters including Kim Yŏng-yun, Ch'oi Ch'ung-ung, Yi Ch'ang-gyu, Hong Wŏn-gi, Cho Ch'ŏng-ja, Yi Chae-suk, Kim Chŏng-ja, Sŏ Wŏn-suk, Kim Sam-tae, Kim Ch'un-ji and Whang Byŏng-gi.

Biodata of the accompanists

***Changgu:* Park Chong-sŏl**

Member of *Chŏng'ak* (정악, Korean Classical music) Performance of *Kunglipkugakwŏn*

***P'iri:* Kwak T'ae-gyu**

Leader of *Chŏng'ak* Performance of *Kunglipkugakwŏn*

***Haegŭm:* Hwang Ae-ja**

Second leader of *Chŏng'ak* Performance of *Kunglipkugakwŏn*

***Tanso:* Yi Tu-wŏn**

Professor of Pusan Education College